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농촌체험연구회
변산면서 무료 체험 운영

부안군 농촌체험관광연구회(회장 채명심)는 오는 19일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안의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는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직화한 농업인 자율 연구모임체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다.

행사는 농촌체험관광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후원하는 가운데 요리 체험으로 보리빵 만들기·청국장 만들기, 미식 체험으로 연잎밥 맛보기 등 부안 농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한지·버닝·키링 등 공예품 제작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790명 지원

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4억 9200만원을 투입,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총 3790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농어업인이며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차 접수를 통해 3336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자를 계속해서 모집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개인당 연간 1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생생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업 체험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자동 지급돼 훨씬 간편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경제 회복 '전력투구'

청년 창업 · 소상공인 · 골목상권 활성화 집중 지원

정읍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맞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시는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업소당 위생용품과 메뉴판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기존 청년 창업 지원 대상



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 생태계

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 등 상권활성화 구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권익현 부안군수, 보건복지부 · 인재원 공동 기획 릴레이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가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최훈식 장수군수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조길형 충주시장을 지목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출생 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최초 대학생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과 다자녀장학금, 대학 비진학 청년의 취·창업 학원비 등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활력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들을 확정해 인구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관왕

6년 연속 황토배기멜론 · 4년 연속 청보리밭축제... 대표 브랜드 도시 입증

고창군이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멜론'과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나란히 대상을 수상하며, 농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MBC,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소비자가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고의 브랜드 선정 행사로, 고창군은 멜론 부문과 생태관광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황토와 해풍 큰 일교차 등 자연 조건 속에서 재배돼,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깊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



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멜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공동선별과 유통 관리를 추진해왔다. 향후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수출 확대, 멜론 가공식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수상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생태관광 부문 4년 연속 대상으로, 20만 평의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대자연의 경관 속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치매 어르신 자연속 치유 위한 '기억텃밭' 운영

정읍시가 자연 속에서 치매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야외치유 프로그램 '생각 놀이터 기억텃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텃밭'은 농업, 해양,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자연기반 치유행동의 일환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치



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1회씩 총 10회기

로 운영되며 야외 텃밭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어르신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감각을 깨우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된다.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추진단 발대식 개최

고창군이 16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청년친화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청년정책 협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군 실무지원반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 부서가 현재 추진 중에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서간 유기적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과제를 정리하고, 중점과제 선정, 성과분석, 조례정비 등 청년친화도시 지정 요건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귀농귀촌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실질적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